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학교영어교육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교 학습자를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安 郢 珪

2012年 8月

제주지역 학교영어교육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교 학습자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鍾 勳

安 郤 珪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6月

安郤珪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2年 8月

<국문 초록>

제주지역 학교영어교육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교 학습자를 중심으로 -

安 邵 珪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鍾 勳

세계가 지구촌화됨에 따라 과거에 국가 간의 두꺼운 장벽은 약화되고 인적, 물적 교류는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영어는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의 척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영어 경쟁력이 요구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본 논문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고등학생들의 바람직한 영어능력 향상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어 학습 성향과 습득 방법은 어떠한가?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영어 교과서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은 무엇인가? 셋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고등학생들의 영어능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영어 학습 성향 및 습득 방법과 관련해서 첫째, 학생들은 여전히 읽기와 문법 위주의 학습을 통한 시험 위주의 영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말하기와 쓰기가 거의 등한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학생들은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관련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이었던 점이다.

영어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교과서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끌만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 내용들은 학생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교과서는 언어 습득을 위한 4가지 기능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 본 논문은 201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도 영어교육 정책은 영어교육 향상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내용언어통합학습법과 영어수업은 최소한 영어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첫째, 의사소통능력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언어 기능 중 쓰기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수업시간에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독려되어야 한다. 셋째, 영어 교과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텍스트와 자료를 수록해야 한다. 넷째, 원어민 영어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말하기, 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다섯째, 영어로 된 T.V 프로그램이나 영자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가 수업 내적, 외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습자 친화적인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곱째, 음성학의 기본 원리를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내용이 쓰기와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으로 본토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타지인들 혹은 외국인들에게 다소 배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편협적인 사고를 깨뜨릴 수 있는 교육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2 연구 문제	2
II. 이론적 배경	6
2. 1 외국의 선진 영어교육 사례	6
2. 1. 1 싱가포르 언어정책과 영어교육 특징.....	6
2. 1. 2 홍콩의 언어정책과 영어교육 특징.....	9
2. 1. 3 덴마크의 언어정책과 영어교육 특징	11
2. 1. 4 핀란드의 언어정책과 영어교육 특징	14
2.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어교육 특징	15
2. 2. 1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15
2. 2. 2 2007 개정 교육과정 기반 영어교육	22
2. 2.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반 영어교육	26
2. 3 제주국제자유도시 영어교육 개선 관련 선행 연구	28
III. 연구 방법	32
3. 1 연구 설문지	32
3. 2 연구 대상 및 연구의 제한점	33
3. 3 자료 수집 및 분석	33
IV. 연구 결과 및 토론	34
4. 1 연구 결과	34
4. 1. 1 학습자의 교육 의존도 및 영어교육 관련 대중매체 활용도 ...	34
4. 1. 2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영어습득 성향 및 학습 방법	37
4. 1. 3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관련 선호도	41
4. 1. 4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개인별 성향 조사	43

4. 2 토론	45
4. 2. 1 영어 학습 성향 및 학습 방법	45
4. 2. 2 영어 교과서에 대한 인식	47
4. 2. 3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안.....	48
V. 결론 및 제언	58
참고 문헌	60
Abstract	64
부 록	66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날로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교통 및 통신 매체의 급속한 발달은 전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바꿔놓고 있다. 특히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이들 매체를 통해 막대한 정보 및 지식들을 더욱 빨리 생산,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화시대에 중앙 정부를 비롯한 지방 정부가 세계 공통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global language)라 할 수 있는 영어 능력 신장을 위해 재정적으로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영어가 세계 각국과의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 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쟁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54년부터 시행된 제1차 교육과정기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해 왔고 교육과정상에서도 영어가 중요한 과목으로 포함되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학생들의 영어능력 신장에서 이렇다 할 큰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는 외국어 교육정책의 문제점, 사회적 분위기 상의 문제점, 교수법상의 문제점 등이 두루 포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험 위주의 영어 교육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정부의 일관성없는 영어교육 정책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유명 대학을 졸업하면 출세를 위한 보증수표를 받는 것과 다름없는 환경에서는 영어 시험만 잘보고 입학하여 졸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영어시험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문법과 번역 위주 교수법이 영어교육의 주를 이룰 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독 위주로 영어를 학습해 온 것이 영어 구사 능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현행 2007 개정 교육 과정상에도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교과서가 제작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영어의 주요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영어실력 향상에 대해 수험영어에서 주로 출제되는 듣기, 읽기 그리고 문법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곧 영어 실력을 높인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큰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영어학습을 하면서 입시관련 영어 교재 읽기 및 문제풀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입시영어 문제풀이에 익숙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대학생들은 TOEIC, TEPS, TOEFL 등의 시험점수를 올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험 점수 높이기엔 전념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있지만 이들 연수자들 중에는 해당 국가에서 다시 수험영어와 관련된 수업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국제수지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무분별한 어학연수와 유학에 커다란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에 영어교육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의 영어교육 모형을 토대로 우리의 영어교육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 영어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영어 의사소통능력은 해외 유학과 해외 연수를 받지 않고서도 학교 영어교육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신장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예를 들어 동남아 지역에서는 국제자유도시인 홍콩, 싱가포르의 영어교육의 정책적인 면을 수용하고 유럽 지역에서는 핀란드를 비롯한 덴마크나 네델란드의 영어교육 강화 방안을 받아들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보자는 입장이다. 본 논문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실제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영어교육이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바람직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2 연구 문제

정보화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지금의 사회에서 영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되었다. 컴퓨터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 세계로부터

생산되는 각종 정보의 8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고 국제회의라든가 국가 간 주고받는 공문서에서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영어 활용 능력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가 경쟁력이 경제력 역량을 수치로 나타내어 판단했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의 사회는 이에 덧붙여 무형의 것을 유형의 가치로 창출할 수 있는 인적 개발 능력이 더욱 더 필요해지고 있다. 즉,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사회를 이루면서 인적, 물적, 교류의 장이 기존에 국가라는 개념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적 논의와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국제화로 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해 보다 현실감 있고 시사 상식 함양을 위해 세계 및 지역 관련 영어 방송과 영자 신문 등을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하는 것도 국제화 마인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자칫하면 영어 학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좀 더 강한 어조로 민현식(2000)은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언어 민족국가에는 영어 공용화가 불필요한 개념이라 애초부터 공용어 논의는 성립할 수 없는 환상임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세계화 개념의 오해, 행정낭비, 공교육 문란, 학문 혼란의 영어 공용어론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영어의 국제화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숙희 외 2인(2006: 240)에서 보듯이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영어의 힘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영어활용 능력은 개인 뿐 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다. 박영의(2003: 14)도 영어는 이제 무국적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다고 역설했다. 박경일(2003: 54)은 영어 문맹에게 인터넷의 바다는 곧 익사의 바다일 따름이다. 결국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싫든 영어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것은 곧 우리가 안고 태어난 숙명이라고 했다. 이는 영어 능력이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사회에서 그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인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에 대한 매개체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현재 많은 나라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바로 영어

인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 내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는 개인 뿐 만 아니라 그 국가가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영어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영어과 교육과정을 여러 차례 개편하며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영어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능력은 특히 쓰기 능력에서 평균 51.5점으로 일본 고등학생들의 쓰기 점수 84.8점과 중국학생들의 쓰기점수 84.2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다(Kwon. et al., 2004). 그리고 실제 학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나 TOEFL 등과 같은 국제적 공인 시험의 결과에서는 2007년 국가별 토플 성적을 비교해 볼 때, 토플 응시생의 평균 점수에서 120점 만점에 네델란드가 103점으로 1위, 덴마크가 101점으로 2위, 싱가포르가 100점으로 3위, 그리고 핀란드가 98점으로 4위인데 비해 한국은 77점이었으며 2008년에는 네델란드와 덴마크가 102점으로 공동 1위, 핀란드는 97점으로 8위인 반면 한국은 78점인 89위를 기록했다. 그래서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는 영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해 왔다. 2016년 이후 현수능 영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영어능력시험(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NEAT)에서는 종전에 수능 영어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영역인 영어 말하기와 쓰기 기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도 도민들의 외국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어 상용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관련 학회에서도 제주도민들의 영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제안한 바가 있다. 최근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건설로 외국의 유명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비롯하여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립국제학교들이 개교하여 국어와 국사를 제외하고 모든 과목들을 영어로 가르침으로써 영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할 사람들과 관련 공무원들의 영어교육을 담당할 제주영어교육센터가 곧 설치됨으로써 영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영어교육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고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어 상용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들의 영어 몰입교육의 시행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밖 영어교육은 생존의 길을 모색할 시점에 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교육에 주목하면서 제주 지역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영어교육 선진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고찰하고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을 고려한 보다 현실에 맞는 영어 습득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비록 2007개정 영어교육 과정이 언어의 4가지 기능의 균형있는 습득에 목표를 두고 실행하고 있는데 실제 학습자들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과거와 얼마나 다른 학습 성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영어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영어 교과서가 영어 습득을 위한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교재에 대한 선호도 및 활용도 또한 영어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성향과 학습 방법은 어떠한가?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어 교과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셋째, 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영어교육이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외국의 선진사례로서 싱가포르와 홍콩 및 덴마크와 핀란드의 학교 영어교육의 특징을 고찰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관심을 두고 있는 학교영어교육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영어교육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를 점검하고자 한다.

2. 1 외국의 선진 영어교육 사례

2. 1. 1 싱가포르 언어 정책과 영어교육 특징

2006년 현재 싱가포르 보건부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인구 분포를 보면 인구 4백만 명 중 75.2%가 중국계, 13.6%가 말레이계, 8.8%가 인도계이며 나머지 2.4%는 유라시아나 유럽 또는 아랍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로서 비록 말레이어, 중국어(북경어 : Chinese Mandarin), 타밀어, 영어 이 4개가 공식 언어이다. 여기서 공용어란 (official language) 정부, 법률, 신문방송, 교육제도 등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공식 사용되는 언어를 말한다(Crystal, 1997: 3).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 매체들은 물론 전철이나 버스, 간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모두 영어로 표기되어 있고 사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점원들까지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영어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언어정책의 특징으로 언어다원주의(multi-lingualism)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는 단 하나만의 언어만을 채택, 교육이나 법률 등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국가의 주 구성원이 되는 그들의 언어 및 문화의 정체성과 관련한 각각의 언어들을 인정하고 보존하도록 하며 소통을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언어를 인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식적인 문화다원주의 정책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Stewart(1968)의 언어계획정책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 즉, 한 국가 안에서 중요

한 몇 개의 언어들을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의 목적과 의사소통을 위해 한두 가지 언어를 채택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중 언어 교육 강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부 싱가포르 지도자들은 국제어로서 영어가 현대의 과학기술, 정보 및 문화 교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전통 문화의 가치와 갈등을 야기, 정체성 상실의 위험성 내포 및 사회적 응집력과 문화적 토대를 흔들 수도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우려해왔다. 한 예로 싱가포르 전 수상 이관유는 언어 정책의 특징으로 영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탈문화화의 악영향을 받게 되어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종족의 그룹으로서 성공하겠다는 의욕과 의지를 주는 사회적 응집력과 문화적 토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시민들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교육할 때 4개의 각기 다른 언어로 가르치게 된다면 네 개의 다른 옹고 그룹을 가르치게 되어 네 개의 다른 민족을 양산하게 되므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교육제도는 국제화 및 지식기반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양성을 정책적 기저로 두고 언어교육을 중시하고 능력위주의 교육을 시행하며 영국식 학제를 가미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모든 국민이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가 성장하여 하나의 건전한 인성으로 보다 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싱가포르 교육부, 2001).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 과정부터 공용어로 쓰이는 영어 이외에 1개의 모국어 배워야 한다. 만 6세에 입학 4년의 기초과목 이수와 5-6학년의 기본 과정을 받는다. 기초 과정에는 영어, 모국어이며 초등학교 입학 후 최초 3년은 영어 및 제 2 외국어를 이수하는 이중 언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영어를 매개어로 하는 학교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민족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감소하자 1987년 싱가포르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영어를 제1언어로 하고 민족어를 제2언어로 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자신이 속한 인종의 언어를 제2언어로 초등학교부터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함으로써 해당 민족의 전통과 문화유산 보존은 물론 영어 구사가 가능할 수 있는 이중 언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후 3년 동안은 이중 언어 교육을 치중하는데 3학년 말에 이중 언어 시험을 치른 후 수료 시험 성적에 따라 반 편

성을 하며 평균이 55점 이하의 성적을 받으면 유급시키는 유급제를 택하고 있다 (박제희, 2003). 싱가포르에서는 10년 의무교육 기간 동안 문자, 수리, 이중 언어, 체육, 도덕, 창의성 등을 강조하는데 특히 모든 학생들이 영어 및 모국어를 배우도록 하는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의 시행은 특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교육과정상의 특징으로는 학생들의 국제적 수준의 영어 실력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어 학습 과정을 하나로 묶어 필요시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려는 취지 때문이다(정영숙, 2005). 이는 교육 과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려는 싱가포르 영어 정책의 중장기적인 학습제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의미중심, 의사소통과 의사표현 수단, 목적과 청중, 맥락, 문화에 따라 다양한 담화 형식을 창조하는 철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영어는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가진 학생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업은 민족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몰입식(immersion) 교육이며 주당 수업시수는 40시간 중 영어수업을 8시간 배정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싱가포르는 중국어, 타밀어, 영어, 말레이어 4가지 언어가 공용어로서 네 언어 모두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어가 국민의 실용어로서 국가 수준에서 통합적 언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민족 다언어를 채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영어의 유창성은 곧 성공으로의 지름길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영어사용은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언어로 인식되고 있다. 더불어 영어는 어느 종족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사용되는 중립적 언어로 간주되어 타 종족들과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언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어는 국가, 사회, 개인 수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무역이나 금융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위한 실용적이라는 언어라는 점이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종족 간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체로서 선택되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영어 사용 능력은 좋은 일자리를 얻는데 유익한 언어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싱가포르에서는 영어 매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그리하여 15-20세 사이 사람들 중 87%가 영어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Crystal, 1997: 51) 현재는 북경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모국어로 하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2. 1. 2 홍콩의 언어정책과 영어교육 특징

홍콩은 언어사용에 있어서 영어와 광둥어(Cantonese)가 공존하는 이중 언어 사회이다. 정부 간행물, 공식적인 서류, 거리명 등은 영어와 중국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는 사업 및 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 언어로 사용되며 반면 광둥어는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후 중국과 홍콩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하게 됨에 따라 홍콩 당국은 중국의 공용어인 북경어(Mandarin)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북경어를 초. 중등학교 교과목으로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 당국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북경어를 정규 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으로 가르치도록 장려하였다. 홍콩 반환이전에는 중등학교의 60% 이상에서 영어를 교육할 때 매체어로 사용했으나 반환 이후에는 25%만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75%가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여전히 86%가 영어를 사용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어 대신에 행정의 언어로서 북경어를 사용하자는 정책이 그 권위와 중요성 면에서 영어와 광둥어를 사용해 온 언어 정책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북경어는 정치와 행정의 언어로, 영어는 기술, 상업, 금융의 언어로, 그리고 광둥어는 가정과 친교의 언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김종훈, 2004). 이처럼 북경어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은 북경, 상하이, 대만, 홍콩에서 사용되는 중국어가 단지 발음상에 차이일 뿐 문자 상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의미전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영어가 사회 전반에 걸쳐 매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를 비롯한 각종 신문이나 방송 등 다양한 매체들이 여전히 영어로 진행,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무역, 제조업 및 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영어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후, 중국 정부는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보다는 중국어 사용을 확대, 사용토록 함으로써 영어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중학교

수업시간에 제2외국어 수업을 제외하고는 광둥어만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영어 사용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어 교육을 강조해온 홍콩이 영어 교육을 다시 강화하고 홍콩 교육국은 중·고등학교를 영문학교, 중문학교로 구분해 온 것을 폐지하여 학교마다 영문, 중문 학급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YTN, 2008. 6. 8). 최근 국제무역의 중심지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광둥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중국 정부는 수업시간에 영어사용을 제한해 왔던 정책을 완화하여 400여 중학교 중 114개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 진행을 허용했던 것을 추가로 80여 학교를 늘려 영어로 수업진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주권 반환 이후 강조돼 온 중국어 교육정책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여겨지며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영어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

홍콩 영어교육도 싱가포르의 영어교육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데 홍콩에서는 중국어 과목과 역사를 제외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내용언어통합학습법을 적용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이 중국으로 이양되기 이전에 비해 영어교육이 과거만큼 강조를 하지는 않아왔지만 여전히 홍콩의 주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홍콩에서는 여전히 영어가 홍콩 정부 또는 행정상층부의 언어가 되었으며 대학에서는 교육언어로 그리고 법정의 언어로 사용되어 왔다. 홍콩의 부모들은 영어를 일종의 명성과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징표이자 실용적인 언어로 생각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조기에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많은 재정적, 뒷받침을 해오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부모들은 조기에 영어교육을 함으로써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더 나은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의 주권 이양 이후 관심에서 멀어졌던 영어교육이 최근에 다시 강화되면서 그 동안 영어교사 수준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가 있어왔던 바 홍콩 교육인적자원부는 영어교사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교사들에게 LPAT(Language Proficiency Assessment for Teachers)라는 시험에 통과한 증명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교사들은 교단에서 퇴출당하는 상황에 와있다. 이 시험은 정부에서 고용된 영어교사 이외에 원어민들조차도 시험에 떨어질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영어교사의 능력향상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1. 3 덴마크의 언어 정책과 영어교육 특징

흔히 성공적인 영어교육의 역할 모델로 유럽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네델란드 등을 많이 언급한다. 덴마크는 스칸디나비아와 중앙유럽을 지리적·문화적·상업적으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한다. 2009년 현재 인구는 5,523,000이며 스칸디나비아인, 페로스인, 이뉴잇족이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덴마크인이며 공용어로는 덴마크어를 사용한다. 19C 말에 이르러 영어가 공교육 과정에 속하면서 광범위하게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이때까지도 영어는 희랍어, 라틴어, 독일어, 불어에 비해 언어적로서 존재감이 미약했다. 이는 또한 언어교육의 문제점을 낳을 수 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했다. 당시 덴마크의 영어교육의 문제점 (Jespersen, 1904; Sorensen, 1989; Juul & Neilsen, 1992; Howatt, 1999)으로는 글 중심 교육으로 구어 영어로서의 영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라틴어 문법에 꿰맞춘 문법 위주의 교육, 번역 연습 위주의 교육이었던 점, 자연스럽지 못한 뭔가 꾸며낸 듯 한 예문 사용으로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기계적, 암기식의 언어습득, 입시 위주의 교육 등은 그 당시 영어교육의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19세기 말 유럽지역에서 외국어 교육 개혁 운동이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을 시기에 Vietor라는 독일인 학자가 1882년 "Der Sprachunterricht muss umkehren" (외국어 교육 개혁을 촉구함)이라는 논문을 "Quoussque Tandem"¹⁾이라는 필명으로 발간했다. 여기서 그는 언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 음성학을 활용한 발음교육, 자연스러운 예문의 사용, 귀납적 문법 교육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독일인 Franke(1884)의 언어 심리학 및 생리학에 의거한 실용적 외국어교육(Die Praktische Spracherlernung auf grund der Psychologie und Physiologie der Sprache)을 Jespersen이 덴마크어로 번역하면서 외국어 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다.

1) 키케로의 Quoussque tandem abutere, Catilina, patientia nostra? (How long will you abuse our patience, Catiline?)라는 문장의 첫 두 단어를 딴 것으로 구태의연한 외국어 교육을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가는 뜻에서 붙여진 것으로 추정.

그는 외국어도 모국어와 유사한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말하기 중심의 외국어 교육 및 외국어 학습 시 문화의 중요성 등을 역설하였다. 이는 덴마크도 약 100여 년 전까지 만 하더라도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 위주의 영어교육과 문법·번역식 영어교육이 만연하였던 것을 여실히 말해준다(한학성, 2004). 덴마크에서 언어교육 개혁을 위한 단초가 되었던 것은 188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3회 스칸디나비아 언어학자 대회에서 스웨덴의 Lundell, 노르웨이의 Western, 덴마크의 Jespersen 이 세 학자가 스칸디나비아 외국어 교육 개혁을 위한 모임인 Quoussque Tandem이라고 명명되는 모임을 결성한 것이다. 그 후 Jespersen은 외국어교육 개혁과 관련한 논문인 새로운 외국어 프로그램(Den ny Spronundervisnings Program)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말하기 중심의 영어교육과 발음 교육의 중요성, 정확한 발음을 위한 발음 교육 체계의 확립 및 사용, 암기식 위주의 문법 교육의 반대, 문법 규칙을 학습자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귀납적 문법 교육, 단편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문장보다는 자연스럽게 내용이 연결되는 텍스트의 학습 초기부터 사용, 번역의 최소화 및 목표어 자체를 통한 외국어 습득을 강조했다.

덴마크는 노동자의 80%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나다. 덴마크에서는 자국민들끼리의 대화는 자국어로 하고 도로 표지판이나 간판도 철저히 자국어로 표기하는 등 철저히 영어를 외국어로서 취급을 하고 있지만 덴마크 국민들이 이 처럼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만은 아니다. 덴마크의 영어교육 개혁 과정의 중심에는 Jespersen(Otto Jespersen, 1860-1943)이 자리한다.

그가 제시한 영어교육 방향은 첫째, 외국어 교육의 기본 목표를 의사소통 중심에 두었다. 이를 위해 목표어 수업은 목표어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학습에서의 유의미성(sensible communication)을 주장했다(Jespersen, 1904: 10). 둘째, 발음교육의 중요성이다. 그는 정확한 발음 습득을 강조하면서 영어교육 현장에서 일관성있는 발음기호 체계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영어 철자와 실제 발음간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발음 표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음기호 체계의 확립 및 발음 교육을 위한 음성학적 지식의 활용을 강조했다. 또한 영어 소리를 모국어인 덴마크어 소리와 연관시키는 것을 차단해야 함을 원칙으

로 내세웠으며 외국어 초기에 철자법으로 인한 혼돈을 막기 위해 일반 철자 대신 발음기호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그의 교수법을 발음기호 교수법(phonetic transcription method)이라고도 한다. 셋째, 외국어 수업 시 목표어 사용의 최대화 및 번역의 최소화를 주장하였다. 넷째, 귀납적 문법교육이다. 문법은 학습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깨달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외국어 학습 초기에는 문법 교육이 문제가 있으나 학습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이후에는 문법 교육의 유용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 연역적 방법이 뒷받침되는 귀납적 접근을 취했다. 문법적 오류와 관련해서도 그는 지극히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법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함을 강조하면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정확성 보다는 유창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섯째, 교재 구성의 중요성이다. 그의 교재 구성의 원칙은 예문들의 의미적 합당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다양하면서도 흥미를 유발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정확성 및 난이도에 따른 점진적 배열되어야 함을 제시하면서 문법적 난이도에 대한 지나친 고려는 피할 것을 주장했다. 여섯째, 무조건적 암기식 교육이 아닌 실제적이고 유의미해야 한다. 일곱째, 외국어 해당 국가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 학습 초기에 매주 상당한 시간을 해당 외국어 학습에 할애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중적 교육을 통한 외국어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마련한 후 일정 수준의 외국어 능력이 확립되었을 때 주당 외국어 시수를 줄여도 무방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모국어 능력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후 외국어 학습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Jespersen, 1904).

덴마크 외국어 교육의 특징은 EU에서 정한 A1-C3까지의 성취수준을 각 학년에 맞게 목표를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방법들은 교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Common European Framework(CEF)라는 외국어 교육과정, 평가, 교수 학습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지표로 삼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어린 아이부터 성인에 이르는 통합적인 목표 하에 성취 수준을 6단계로 나누는데 이를 국가별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학생들 대부분이 공립학교에 다니고 초등학교 4년부터 영어를 교과목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그들은 문법이나 독해보다는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실용영어 위주로 가르친다

(김종훈, 2010). 덴마크에서 영어교육 원칙은 영어는 영어로 가르친다는 것 이외에도 수학, 미술, 과학등도 영어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제1외국어로 영어교육을 주당 2시간, 그 이후는 3시간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1, 2학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자료, 2007). 주당 영어교육 시수를 고려할 때 많은 시간을 영어에 소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더빙이 되지 않은 미디어를 많이 접하고 많이 말하고 많이 듣는 실용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언어 습득과 영어친화적인 사회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교육 시수와 영어구사의 관계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듯하다.

2. 1. 4. 핀란드 언어 정책과 영어교육 특징

핀란드는 한국어와 같은 우랄알타이어에 속한 유럽의 작은 섬나라이다. 13세기에는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배에 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주변 열강으로부터 계속되는 수난의 역사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내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언어적으로도 중세에는 독일어, 라틴어, 스웨덴어가, 16, 17세기 이후에는 스웨덴어가 핀란드의 행정과 교육에서 주로 지배하면서 핀란드어의 사용 비중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 엘리아스 뢰로트가 민족 서사시 칼레발라를 저술하여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스웨덴어를 쓰던 상류층들도 핀란드어와 핀란드 문화에 대해 주도적으로 장려하였다. 그리고 1892년에는 핀란드어가 스웨덴어와 필적할 만한 공식적 지위를 얻게 됨으로 인하여 정부와 사회를 지배하는 언어로 핀란드어가 자리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주변국들로부터의 영향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는 세계 최고를 차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교육 시스템, 국민 의식,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핀란드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국민 개개인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발로가 강한 동기의식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윤신화(2006)는 영어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 원천을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외국어 몰입교육(immersion program)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일정기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학생들의 반응과 효과를 통한 이행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다. 핀란드의 교육 원칙은 뛰어난 학생을 육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 학생이 일정 실력을 갖추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철저한 수준별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7세부터 공교육이 시작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영어 교육은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핀란드 국민들이 처음부터 영어에 친숙한 것은 아니었다. 핀란드 또한 처음에는 문법·번역식 방법과 주입식으로 영어를 가르쳤으나 실용적이고 현실 위주의 영어 습득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수방법을 바꾸었다.

핀란드 영어교육의 핵심은 과목의 내용과 언어를 통합해서 가르치는 철저한 내용언어통합학습법(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을 통한 영어 능력 향상에 있다. 무엇보다 목표 언어에 대한 일관된 정책, 학부모의 적극성, 풍부한 경험과 자질을 갖춘 교사, 그리고 영어에 많이 노출되는 학생들의 적극성이 핀란드 국민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어교육 특징

본 절에서는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영어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시한 영어정책 및 영어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2. 1.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영어교육은 먼저 우리나라 현행 영어과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개정 교

육과정은 근본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한 것이므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부(1996)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과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 외국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함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인 교육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이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이 영어교육과정은 의사소통 교수법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에 기초를 두고 문법적 정확성 보다는 의사소통상 유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7개의 의사소통 기능과 그와 관련된 46개의 예시적 의사 소통문을 제시하고 있다. 7개의 의사소통 기능은 친교활동, 사실적 정보교환, 지적태도 표현, 감정표현, 도덕적 태도 표현, 설득과 권고, 그리고 문제해결이다. 세부적으로는 친교활동에 인사, 소개, 감사, 칭찬, 약속, 음식 권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적 정보 교환에는 사실 확인, 사실 묘사, 습관, 경험, 계획, 수정, 비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적 태도 표현은 동의와 반대, 제안, 기억 묻기, 확신하기, 의무, 허락, 지시, 금지, 의견 표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정 표현에는 희노애락, 원하는 것, 동정, 소망과 의지 등에 관한 것이다. 도덕적 태도 표현으로는 사과, 변명, 후회, 관심이 있고 설득과 권고에는 요청, 충고, 경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제해결 부분에는 원인과 결과, 길 안내, 물건사기, 음식주문, 이해점검 및 전화하기가 들어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둘째,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문자언어보다 음성언어를 중시하는 언어교육 과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문자 언어 중심이었던 종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음성 언어 중심의 교육을 함으로써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도 과거보다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음성 언어 사용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활동과 과정 중심의 영어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그룹 활동이나 체험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게임이나 역할 놀이 등을 포함하여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성취 기준의 명료화와 상세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제6차 교육 과정의 내용을 성취 기준으로 바꿔 상세화하였는데 내용 체계는 언어기능, 의사소통 활동과 언어 재료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언어기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언어기능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소통 활동은 음성 언어와 문자 활동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언어의 재료는 교재, 문화,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를 고려하여 제시하면서 초등학교에서의 어휘를 전체 450단어 이내로 제시하고 30단어의 외래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중학교에서 고 1까지는 1250단어의 새 어휘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소재로는 학습자의 흥미, 인지적 수준을 고려하고 영어권 생활양식과 문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과 기본 어휘 수를 크게 늘렸다. 이는 교수자나 학습자에게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취 목표를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심화·보충형 수준별 영어교육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수한 학생과 학습에 뒤처진 학습자들 모두를 위한 영어교육을 실시하되 우수 학생들에게는 심화 과정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학업에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보충 과정을 통해 정상 수준에 미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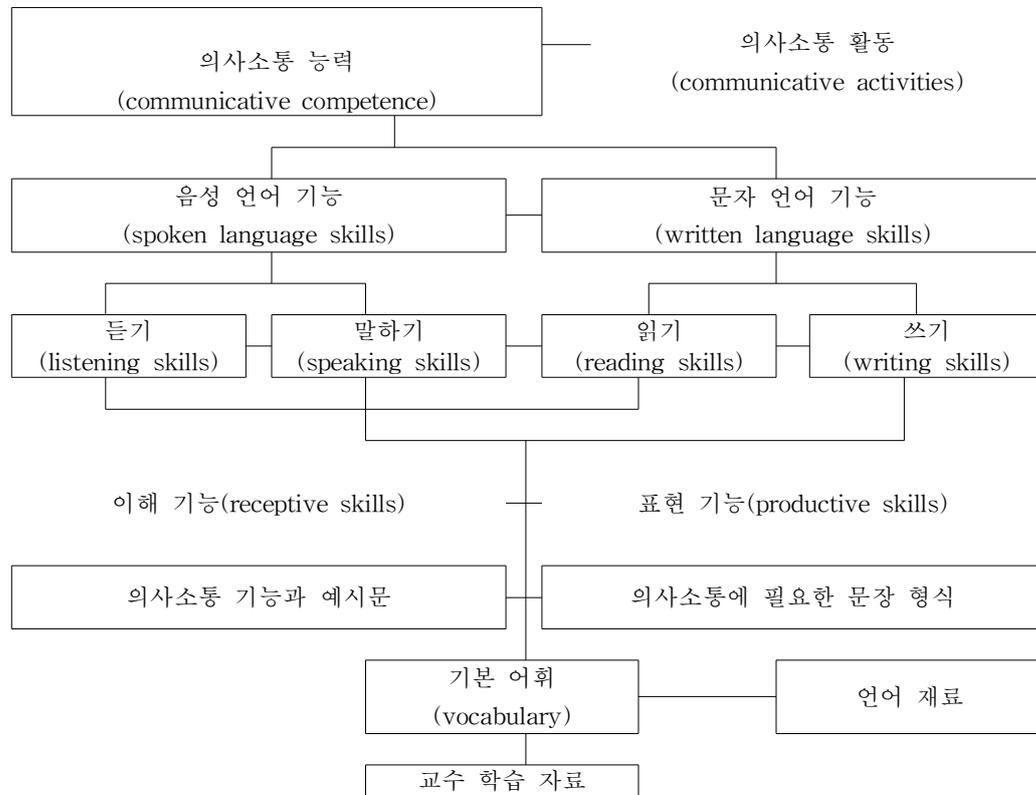
여섯째,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습의 주체가 학생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흥미, 관심,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의 방법도 학습자 중심으로 하며 학습 과정에서 참여와 학습에 대한 책임감 및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곱째,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논리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가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영어교육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는 <표 1>에서 보듯이 언어 기능, 의사소통 활동 그리고 언어 재료로 구분되고 있다. 언어기능은 언어의

4가지 기능을 개별적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의사소통 활동은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음성언어 활동과 문자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 재료는 자연스러운 언어활동을 위해 교재, 문화, 어휘 및 문장의 길이를 고려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소재로는 학생들의 흥미도 및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영어권 문화 및 표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1997).

<표 1>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모형: 한국교육개발원, 1997>



특히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의사소통 모형을 주축으로 하면서 의사소통의 기능과 문장의 기본 구조를 연결시켜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준별 교육 과정의 틀 속에서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형 교육과정을 두고 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초등 3-6년 사이의 과정으로 흥미로운 것에서 시작하여 체험적, 감각적 학습활동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영어교육에 접근하려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학습 방법으로는 첸

트, 노래, 시청각 자료나 교구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한 활동 중심 수업이 권장되고 있다. 말하기와 쓰기 지도는 초창기에는 의미전달에 그리고 점차 유창성과 정확성에 초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열린 교육을 통한 개별 및 협력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습 목표에 알맞게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보충 및 심화학습에서는 개인별, 조별, 분단별 수업 방법의 강구와 이를 위해 알맞은 수업 자료를 제작,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아울러 영어권 문화에 대한 적절한 상황 소개 및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인식하기 위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중1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교육과정으로 각 단계별로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 단계에서 보충·심화학습을 위한 열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과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 상호 작용이 활발하도록 하면서 가능한 영어로 말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게다가 의사소통 전략을 활용, 문화 학습으로 가치관과 판단력을 부여하면서 인지수준에 맞게 동기를 유발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시청각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성취 기준을 파악한 교수방법을 개발하여 학습 내용이 내재화로 자연스럽게 표현 가능하도록 하며 기계적인 연습을 피하면서 유창성을 가질 수 있게 연습하도록 하고 있다. 읽기는 직독 직해가 가능하도록 지도하며 쓰기는 주제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인지 발달로 인한 다양한 영어 학습 방법을 고려하여 편성되고 있다. 이 과정은 영어 I, 영어 II, 영어 독해, 실용 영어 회화, 영작문을 포함하고 있다.

영어 I 과정에는 학습 방법으로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상호작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 전략을 활용, 유창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읽기는 속독을 통해 글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학습을 통해 판단력과 가치관을 기르는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어 II는 향후 진로와 전공 분야에 따른 학술적인 연구 수행에 필요한 영어의 4가지 기능을 배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습 내용은 영어 I과 연계하여 지도하고 가능한 시청각 자료와 멀티미디어를 많이 활용하여 지도한다. 또한 외국 문화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역점을 둔다.

영어 독해는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과목으로 교수 학습 방법으로는 독서의 욕 고취를 위해 다독 중심의 지도를 통한 독서의 즐거움과 가치를 얻고 동시에 필자의 의도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암기 보다는 이해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며 문화 학습과 개별 및 자율학습을 지도함으로써 학습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용 영어 회화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회화 표현을 지도하는데 이는 의사소통 기능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청해와 표현 능력을 길러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하며 실생활과 유사한 모의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을 터득함으로써 정서 및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 분단별 학습 활동을 통한 유창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공공 생활을 통해 과업과 내용을 선정하여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다.

영작문은 배운 내용과 소재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연스럽게 글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습 내용은 7-10단계와 연계하여 지도를 하고 작문에 알맞은 교수 학습을 적용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을 제시하면서 통제 작문과 자유 작문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7가지 영어 평가 원칙을 세우고 있다. 첫째로, 의사소통 기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둘째로,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문법지식의 측정은 피하면서 언어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다. 셋째로, 평가 목표에 따라 분리평가와 통합평가를 적절하게 사용하되 고급단계에서는 통합평가에 비중을 둔다. 넷째로, 자기 주도적 의사소통 의욕과 의사소통 활동의 참여도 및 학습 발달 과정 등을 관찰하여 평가한다. 다섯째로, 평가를 통해 이미 터득한 언어 규칙이나 모형을 기초로 언어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확인해 보게 한다. 여섯째로, 평가는 학습목표와 그 축을 같이해야 한다. 일곱째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평가활동을 제공

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도록 유도한다는 원칙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음성언어 중심의 듣기, 말하기 평가를 주로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읽기와 쓰기 평가가 이루어지며 저학년에서는 듣기, 말하기 평가를 고학년에서는 읽기, 쓰기 및 통합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성취 의욕을 고취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영어 사용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관련해서는 듣기 평가는 어휘, 내용 이해 및 적용을, 말하기 평가는 어휘, 발음, 의미 표현, 유창성을, 읽기 평가는 어휘, 내용 이해 및 적용, 그리고 쓰기 평가는 어휘, 절차, 의미 표현, 조직성을 평가한다. 평가 방법으로는 구두시험으로 통합 평가와 듣기 평가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그림과 소리를 연결하여 측정한다. 말하기는 그림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후 이에 부합되는 표현법을 생각해 내는 능력을 평가한다. 읽기는 간단한 단어나 어구, 문장과 이에 부합되는 그림을 제시한 후 연결하도록 평가한다. 쓰기는 알파벳, 그림을 보고 단어 쓰기, 상황을 주고 이에 부합하는 문장을 쓰는 능력 평가이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상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에 알맞게 단계별 수준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통합평가방식이 권장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구술 면접(oral interview test), 받아쓰기 시험(dictation test), 규칙 빈칸 채우기 시험(cloze test), 에세이 쓰기 시험(essay writing)등이 제시되고 있다. 평가상 지침으로는 음성언어 듣기, 말하기 뿐 만 아니라 읽기, 쓰기 평가가 있는데 읽기, 쓰기는 듣기 말하기와 연계시켜 평가한다. 저학년은 유창도를 고학년은 정확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창의성, 모험성, 추측력 평가 및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갖춘 평가를 하도록 한다. 영어 사용 능력에 대한 평가로는 듣기는 어휘, 내용 이해 및 적용을, 말하기는 어휘, 발음, 문법, 문화의 이해도, 의미 표현, 유창성을, 읽기는 어휘, 내용 이해, 적용 및 추론력을, 쓰기는 어휘, 절차, 의미 표현, 응집성 및 조직성을 평가 지침으로 둔다. 평가 방법으로는 구두시험으로 통합 평가를 하며 듣기 평가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그림과 소리를 연결한다. 말하기는 그림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후, 이에 부합하는 표현법을 말하는 것이며 읽기는 배운 단어나 어구, 문장과 부합하는 그림을 제시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쓰기는 그림에

있는 상황을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자기표현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의 처리는 심화·보충형 평가와 동일하다.

선택 교과 과정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깊이있게 평가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영어 I, II는 의사소통 기능과 유창성,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갖춘 평가로 분리와 통합 평가를 적절히 활용하되 통합평가 방향으로 측정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며 의사소통 활동 참여도 관찰을 평가한다. 영어 독해는 독해 책략 숙지도 측정, 글 전개, 대의 파악, 논조 파악, 암기 위주 평가 지양, 독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실용문 읽고 내용 파악 등을 평가한다. 실용 영어 회화는 유창성과 정확성을 적절하게 평가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실제 평가하고 받아쓰기와 면담, 주어진 과업이나 문제 해결 등을 종합 평가한다. 또한 의사소통 참여도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 영작문은 쓰기 능력 집중 평가, 생각하는 내용을 써보는 평가, 어휘, 문화적인 면, 문법, 스타일리스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논리의 정확성, 단락의 응집성, 언어 사용의 정확성 및 비판, 논쟁, 자기주장을 관찰하는 능력을 평가에 포함한다.

2. 2. 2. 2007 개정 교육과정 기반 영어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영어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큰 틀을 유지하되 현안별로 지식 정보화, 다매체, 다문화 등 사회의 변화에 따른 외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요구를 반영,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등의 개선과 외국어과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한 교육과정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개정 방향으로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의 구현을 위해 학습 내용의 연계성 강화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해 현실 적합성을 제고한 수준별 수업 운영 지원, 선택 과목 간 수준별 차별화로 학습자의 능력, 적성, 소질 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 및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학습 내용의 연계성 강화는 학교급 및 학년 간 교육 내용의 연계를 강화하고 선택과목간 진로별 특성을 반영하여 계열성을 강화하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관한 한 의사소통 기능 및 문화 관련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강화하였으며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개선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잠시 설명하면 국민공통 기본 영어교육 과정에서 영어와 영어 과목의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보강하였으며 수준별 수업에 관한 단위 학교 자율성과 관련한 진술을 포함시키고 있다.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는 문자언어 도입 시기를 초등 4학년에서 3학년 2학기로 조정하였으며 초등 문자 도입과 관련한 항목을 재조정하되 문자언어 수준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등 영어의 성취기준은 학년단위로 통합하고 그 위계를 조정하였으며 성취 기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화, 기본과정으로 구분된 내용을 통합, 조정하였다. 그리고 표현기능에 대한 성취 기준을 우리나라 영어교육 여건을 고려, 현실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수준별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명료화하고 활동 내용도 구체화하였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에 정보통신기술(ICT)활용을 강조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문화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의 계획에서 활용까지를 평가지침으로 제시하고 학교급별 평가상의 유의점을 분리 제시하였다. 문화를 소재 항목에 통합하여 교과서에 반영하는 정도를 강화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과 관련해서는 담화 특성과 의사소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기능 분류 및 예시문을 조정하였다. 어휘는 기본 어휘 관련 지침을 명료하게 개선하고 기본 어휘의 타당성 확보를 통한 기본 어휘수를 소폭 증대시켰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영어 I, II는 제7차 교육과정상의 영어 I, II와 동일하나 8단위를 6단위로 조정한 점이 다르다. 아울러 영어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네 기능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영어 회화를 실용 영어 회화와 심화 영어 회화로 구분하였다는 점과 듣기와 말하기 기능을 통합하여 실용적 기능 습득을 강조한 점이 차이가 나고 있다. 영어 회화 수준은 영어 I, II에서 다루었던 부분 보다는 다소 낮게 잡고 있다. 제7차 영어과 교육

과정의 영어 독해와 영어 작문은 2007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이란 두 과목으로 분리되고 있으며, 수준은 영어 I, II 보다는 약간 높게 설정하고 있다. 선택과목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어 및 영어 과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택과목별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국민 공통 기본교육 과정상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각 과목별 목표 진술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각 과목에서 이해기능 성취 기준의 수준을 고려하여 표현 기능 성취 기준의 수준을 적정화하고 성취 기준의 진술을 더욱 명료화하고 있다. 언어 기능별로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내용간의 유기적 구성을 강화하고 각 과목의 어휘 수준을 조정하여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과 언어 기능별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하되 정의적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표현 능력 평가 및 학습 내용과 평가의 일치를 역설하고 있다.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과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차이점은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수준별 수업의 자율적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최종 단계의 영어교육 목표만을 제시한 반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체 목표 아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목표를 분리하고 명확한 목표를 진술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교과 내용별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재료를 소재, 문화,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로 구분하고 학년별 어휘를 초등 450낱말 내외, 7-10학년은 1,250낱말 내외로 전체 누계 1,700낱말 내외로 정하고 있으며 기본 어휘 목록의 어휘 수는 2,067낱말로 정하고 있다. 반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재료 중 문화 항목을 소재에 포함시키고 학년별 어휘를 초등 500낱말 이내, 7-10학년은 1,290낱말 이내로 증대시켜 전체 누계를 1,790낱말 이내로 한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조정 및 기능을 추가 하였으며 기본 어휘 목록의 어휘 수를 2,315개로 상향 조정하였다. 중등 영어의 성취 기준을 학년 단위로 통합, 위계 조정을 하였으며 성취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기본, 심화 과정을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자 언어 도입 시기를 종전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3학년 2학기 앞

당기되 음성언어의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년별 어휘수의 소폭 증대, 의사소통기능 조정, 예시문 수정 및 추가, 기본 어휘 목록의 어휘수 증대, 성취기준의 학년별 제시, 성취기준상의 심화 과정 내용 삭제 및 초등 문자언어 도입 시기 등의 면에서 이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수 및 학습 방법에서도 제7차 영어교육과정에서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한 반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방법의 하위 항목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수준별 수업의 학습 유형, 학습 활동, 집단 편성 등의 기본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계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내용이 삭제되고 학교급별로 교수·학습방법 내용을 제시하고 교수·학습방법 항목에 수준별 수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평가와 관련한 차이를 보면 제7차 영어교육과정에서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평가 관련 사항을 제시한 반면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평가 지침과 평가상의 유의점으로 나누었다. 평가 지침에는 초·중등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평가상의 유의점에는 초·중등학교를 구분하여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평가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평가지침과 유의점을 분리, 평가와 관련한 기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선택과목에 있어서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 영어 I, II의 언어 재료를 소재, 문화, 언어, 어휘로 구분하고 과목별 어휘 수는 영어 I은 2,300낱말 내외로 영어 II는 3,000낱말 내외로 제시하고 과목별 기능별 성취기준을 제시하면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연계시키고 있다. 게다가 네 기능을 균형있게 평가하되 암기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는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반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재료에서 문화를 소재에 포함하여 소재, 언어, 어휘로 제시하고 과목별 어휘는 영어 I이 2,000낱말 이내로, 영어 II는 2,800낱말 내외로 하며 각 과목에서 표현 기능 성취 기준의 수준을 이해 기능 성취 기준 수준보다 낮추었으며 일부 성취 기준에 상황과 화제 개념을 도입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ICT 활용 수업을 강조하고 언어 기능별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하였으며 정의적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표현 능력의 평가 강조와 학습 내용과 평가의 일치

를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과목별 사용 어휘수의 다양화와 표현 기능 성취 기준의 수준을 이해 기능보다 낮춤으로써 학습 부담의 경감과 학습 효과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취 기준 적정화, 연계성 및 위계성 강화와 학습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표현 기능에서의 수행 평가를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영어교육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이 교육과정은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과 큰 틀에서는 목표하는 바가 차이가 많지 않으나 세부적으로 볼 때 과목 편성과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영역에서 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영어 회화와 영어 작문의 과목수가 늘어난 것은 영어 표현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씀으로써 세계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영어 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평가 항목이 포함된 새로운 형태의 영어 평가 방법인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을 2012년에 두 차례 실시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성인용 1급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외에 학생용 2급과 3급 국가영어능력시험을 치르도록 한 후 현행 수학능력 평가시험을 대체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제주국제자유도시 영어교육은 앞으로 학생들의 영어구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전국적인 교육과정에 의한 영어교육과는 어떻게 다른 교육 정책을 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2.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반 영어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8)은 지난 2008년 2월 학교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방안은 모두 여덟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초등 영어 수업 시수를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초등 영어수업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주당 1시간을 배정하고 2009년에

는 3-4학년은 주당 2시간을 5-6학년은 주당 3시간으로 기존보다 1시간 늘려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등 영어교과 평가방법 개선이다. 수행평가를 듣기, 말하기 등 의사소통능력신장 중심으로 하며 중.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듣기와 말하기 평가를 실시, 이를 영어 성적에 10% 반영한다는 것이다. 고교 입시에서도 듣기 문제를 현행 24문항(듣기 6문항)에서 30문항(듣기, 말하기 15문항)으로 확대 실시하고 종전에 연 2회 각 회당 20문항을 30문항으로 문항수를 늘려 실시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영어교사 맞춤형연수 실시 강화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 전면 실시 대비 영어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영어담당교사의 단계별 맞춤형 연수 및 초등 전담교사 영어 직무 연수를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 6개월 이상 해외 연수를 포함한 장기 연수 및 숙박형 연수를 강화하고 중등영어교사 및 초등교사에게 3년 주기 영어 직무연수를 의무화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aching English in English)의 확대 실시이다. 기존 영어 전담교사 의존에서 담임/교환교사를 영어담당제로 영어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어의 4가지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 지도하고 이를 위해 영어의 4가지 기능을 영역별로 담당교사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i-좋은 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 몰입교육을 점차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몰입교육 지도교사 집중 연수 및 몰입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외국어 학습관, 제주형 자율학교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몰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섯째는, 영어교육 현장지원 확대이다. 여기에는 12학급 이상의 중학교와 9학급 이상의 고등학교에 외국어교육부를 설치하여 영어교육 및 국제교류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수 영어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한국인 영어전용교사를 채용, 활용한다는 것이다.

일곱째는, 실용 영어 회화집을 개발, 보급한다는 것이다. 학교급별(초, 중, 고), 학년 단위(초1-고2)의 CD자료를 포함한 실용 영어 회화집을 개발하고 제주도내 전학생에게 무상 보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 구사능력 학교장 인증제를

영어회화능력 인증제로 대체 실시하여 학교장 인증서를 수여하며 전학생이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영어교과 수행평가에 반영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다.

여덟째는, 초등 1, 2학년 영어수업 확대 실시를 위한 영어교과서를 제작 및 보급하고 초등영어 연구시범학교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영어 능력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3 제주국제자유도시 영어교육 개선 관련 선행 연구

본 절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영어교육을 개선해야 함을 주장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외국의 영어교육 성공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학자들부터 고찰하는 것이 좋겠다.

먼저 한학성(2002)은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본받아야 할 역할 모델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방식의 영어 교육이 아닌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영어교육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덴마크의 영어교육을 역할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덴마크 영어교육이 성공한 요인으로 의사소통중심, 발음교육 중시, 번역의 최소화, 영문법 규칙의 자연스러운 습득, 교재 구성의 중요성, 기계적 암기 위주의 교육 거부, 문화적 측면 중시, 교사의 중요성 강조, 학습 초기의 집중 교육 실시를 들고 있다. 덧붙여 그는 덴마크의 영어교육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주도 등의 특정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정해 일정 기간 동안 시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변종민(2002)은 네델란드와 덴마크를 비롯한 여러 유럽국가들의 경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면서도 모국어인 사람들의 일정한 인구분포로 인해 자연스럽게 영어가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영어구사력을 높이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초·중·고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요구했으며 학교교육 강화 방안들로 영어교사 연수 강화, 외국어 학습 시설 보강,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제 실시, 기간제 원어민 교사 배치, 교환 학생제 및 해외 어학연수 활성화, 개가식 영어 학습 자료실 및 영어독서실 운영, 교

과서 채택 등의 자율성 부여 등을 제안했다.

진경애(2007)는 핀란드 영어교육이 성공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초기 단계에서부터 영어의 4가지 기능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 둘째, 대학입학시험에서 시험의 내용적인 측면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셋째, 음악, 영화, T.V 드라마 등을 영어로 방영한다는 점이다. 넷째, 다년에 걸친 교사 양성 과정을 통한 우수교사를 확보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핀란드에서의 영어 수업은 유년 시절부터 영어에 많이 노출됨으로 인해 자연적인 언어 습득의 원리를 적용, 초등 3학년 때부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을 적절하게 익히고 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언어의 4가지 기능을 적절하고 균형있게 학습함으로써 영어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언어의 4가지 기능을 고루 교육 받은 학생들은 중학생이 되면 영어 이외의 과목들도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 참여한다. 특히 대학 입학시험은 듣기와 쓰기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바 쓰기 영역에서는 6시간 동안 4 문제의 에세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작문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박준언(2006)은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지금부터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영어 사용 환경을 크게 늘려야 하며 영어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글을 써야 할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우선 대학부터 인위적으로라도 영어 사용 환경을 대폭 확대하고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교수는 가능하면 영어로 강의해 대학생들에게 영어 입력 양을 조금이라도 늘려 주어야 하며, 또한 학생들이 서툰 영어라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영어 사용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린 학생부터 우리말 뿐 아니라 영어에 상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의 영어 교육 현장 방문 후 인상 깊었던 나라로 말레이시아를 예로 들면서 말레이시아는 2003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요 교과목을 자국어인 바하사 말레이시아어가 아닌 영어로 교육해 오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는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는 자국민의 우수한 영어 사용 능력을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삼고 어린 학생부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

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것은 마치 싱가포르에서 이관유 전 수상이 다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의 도구로서 영어 강화 정책을 폈던 것과 유사하다.

김종훈(2010)은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궁극적 성공을 위해서는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면서 핀란드, 덴마크, 네델란드의 공통적인 영어학습 모형인 내용언어 통합학습법(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우리의 경우는 이중 언어 사용자를 양성하는 정책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 이중 언어 사용자란 William & Snipper(1990: 34)의 정의에서 따르면 첫째, 두 언어로 이야기 될 때 전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으며, 둘째, 두 언어를 사용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말할 수 있으며, 셋째, 글로 된 메시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두 언어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김종훈(2010)은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 언어정책은 Korean only가 아닌 Korean Plus(또는 Korean Plus English)를 기본으로 제시하면서 점차적으로 Korean + 1(English) + 2(Japanese & Chinese)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영어 전용 TV 방송국 설치,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영자신문 발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영어 시간은 물론 국어나 국사를 제외한 다른 과목에도 영어를 매체로 강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특수한 언어적 환경을 언급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영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영어교육 강화에 주력하면서도 제주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국어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고신옥(2003)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영어교재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영어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의 소재로 제7차 영어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도록 학습자의 흥미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화 내용을 소개하고 학습자 주변 지역의 소재를 많이 반영한 교재가 될 때 학습자의 흥미, 필요, 동기 등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재 내용 및 구성과 관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영어 교재의 주제로 제주의 관광지 탐방, 제주의 문화 이해, 제주의 자연 감상, 제주의 전설과 민

속 탐색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제주 관광지 탐방의 소재로는 일출봉, 만장굴, 골프 코스, 오설록에 대한 내용을, 제주 문화의 이해 소재로는 제주의 축제들, 관덕정과 돌하르방, 향토 음식을 소재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주의 자연 감상 부분에는 한라산, 오름(parasitic cones), 그리고 함덕 해수욕장에 대한 내용으로, 제주전설과 민속 탐색에는 삼성혈,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과 산방산을 각각 소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 언어 기능을 신장시키는 활동과 관련하여 듣기와 말하기를 통합시키고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익히기 위해 소재에 대한 지문을 읽게 한 후 질문하여 답하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민을 위한 영어교재 개발 방향 및 활용에 대해 고찰한 변길자(2007)는 교재 활용면에서는 제주의 관광,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면서 수준면에서도 초보자의 수준을 벗어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바람직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영어회화 능력 뿐 만 아니라 음성학적 설명과 기본적인 문법을 포함한 독해나 듣기 및 쓰기의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재가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교재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생활영어회화를 다루는 것이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는 영어 학습자인 제주도민에게 흥미를 주면서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관광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크게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또 각 부문에는 다섯 개의 과를 배당하여 총 5개 부문의 25개 과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또 제주도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요구하는 영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주도 특유의 관광지 및 자연, 역사, 문화 등을 알아야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국가의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맞추어 영어교육을 수행하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영어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그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더 많이 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영어 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할 도구로서 연구 설문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누구인지를 비롯하여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3. 1 연구 설문지

제1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먼저 연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 설문지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A영역에서는 학습자의 교육 의존도 및 영어 교육 관련 대중 매체 활용도와 관련한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는 홍콩, 싱가포르, 덴마크, 핀란드의 성공한 영어교육의 모형에서 방송이나 신문등 대중 매체가 영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대중매체 활용도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학습자의 목표 언어에 대한 관심도 및 동기화가 목표언어를 향상시키는 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항도 추가시켜 보았다.

설문지 B영역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습득 성향 및 학습 방법에 대한 것으로 영어 습득의 가장 핵심적인 언어의 4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영어를 처음 접한 시기와 학습자의 목표어에 대한 어휘 습득 방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발음 교육 그리고 문법 관련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지 C영역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 교과서와 관련한 학생들의 선호도에 관한 것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연계성에 대한 인식 조사,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과의 연관성 유무에 대한 것, 그리고 지역 친화적인 내용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설문지 D영역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개인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도 및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제주인의 인식, 그리고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에 대한 호감도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3. 2 연구 대상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소재한 N 고등학교와 J 고등학교 두 곳에 재학 중인 2학년 여학생 12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두 학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제주국제자유도시 전체 고등학생 가운데 중·상위권에 해당한다.

이들 참가자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영어교육을 받은 학생들로서 연구자가 의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영어교육 관련 설문에 객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설문 대상과 관련한 제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내 인문계 여학생 120명을 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또래 남학생들과 생각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외곽지역 인문계 고등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조사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중학생이나 대학생들 그리고 성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등이다.

3. 3 자료 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설문 자료는 영어교육에 성공한 외국 국가들의 영어교육 강화 관련 정책상의 특징들을 종합, 수집한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응답자 수(120명)와 응답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5	당신은 EBS 방송에서 주로 영어의 어느 부분을 이용하나? a. 수능관련 강의 b. 토플, 토익 c. 회화 d. 영문법	a : 48	40
		b : 2	2
		c : 13	22
		d : 57	48
6	EBS 강의에 대한 당신의 만족도는? a 매우 만족 b 만족 c. 보통 d. 불만족	a : 3	3
		b : 30	26
		c : 78	48
		d : 29	24
7	당신은 EBS 교재 및 강의에서 수능 시험에 출제율이 높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매우 긍정적 b. 긍정적 c. 보통 d. 부정적	a : 6	6
		b : 26	22
		c : 78	65
		d : 10	8
8	제주 지역에 주간 영자 신문인 Jeju Weekly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나요? a. 자주 이용한다 b. 종종 이용한다 c. 신문이 있는지 모른다 d. 관심이 없다	a : 0	0
		b: 23	21
		c : 82	71
		d : 11	9
9	당신은 아리랑 T.V 또는 영어 라디오 방송을 얼마나 자주 접합니까? a. 매일 b. 종종 c. 거의 접하지 않는다 d. 전혀 접하지 않는다	a : 3	2
		b : 47	36
		c : 52	40
		d : 28	22
10	T.V나 길거리에서 영어로 쓰여진 광고나 홍보물에 대한 당신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a. 매우 관심이 있다 b. 관심이 있다 c. 관심이 없다 d. 전혀 관심이 없다	a : 3	3
		b : 61	51
		c : 46	38
		d : 10	8
11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a. 매우 만족 b. 만족 c. 도움이 된다 d.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a : 12	10
		b : 47	39
		c : 36	30
		d : 25	21
12	만약 교육법상 영어 유급제가 실시된다면 당신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a.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b. 노력할 것이다 c. 다시 이수할 것이다 d. 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	a : 24	20
		b : 55	46
		c : 6	5
		d : 35	29

공교육과 사교육의 신뢰도 면에서는 공교육 46% 사교육 54% 비율로 학생들은 공교육 보다는 사교육을 신뢰하는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에

서 내신 관련 강의 및 준비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학생 수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가 숫자상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교육이 내신 및 입시에 보다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대학 진학 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고 싶은 영어의 영역은 듣기 및 말하기가 75%로 다른 영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OEIC과 TOEFL과 같은 공인 영어 준비가 16%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읽기가 5%, 쓰기가 3%로 매우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BS 방송 또는 인터넷 강의의 이용 빈도수에 대해서는 자주 이용한다가 34%, 종종한다가 50%로 나타났으며 가끔 이용한다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14%와 2%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방송 매체를 활용한 영어 습득과 관련하여서 수능관련 강의를 40%, 영문법 강의를 48%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교생들은 수능능력시험을 앞뒀는지 대부분 수험영어 관련 강의를 듣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BS 강의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만족이 26%, 보통이 48%를 보여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에 불만족도 24%나 되는 것으로 보아 일부 학생들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EBS 교재에서 수능 출제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 6%, 긍정적이 22%, 보통이다가 65%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EBS 교재에서 수능이 출제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영자신문인 Jeju Weekly에 대한 활용도와 관련한 질문에 Jeju Weekly를 종종 이용한다가 21%로 나타났지만 지역 영자신문이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71%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도 9%로 나타났다. 아리랑 T.V나 영어 라디오 방송을 접하는 빈도도 종종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인데 비해 거의 접하지 않는다가 40%, 전혀 접하지 않는다가 22%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방송매체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V나 홍보물 등이 영어로 쓰여진 것에 대한 관심도는 51%로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생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영어회화 시간에 원어민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 10%, 만족 39%, 도움이 된다가 30%로 원어민 교사의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21%로 나타난 점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영어 유급제가 실시될 경우의 태도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가 24%, 노력할 것이다가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1. 2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영어 습득 성향 및 학습 방법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내 고등학생들의 영어 습득 성향 및 학습 방법과 관련한 설문에 대한 결과이다.

<표 3>

번호	설문내용	응답 (명)	비율 (%)
1	당신은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나요?	a : 64	53
	a. 예 b. 아니오	b : 56	47
2	당신은 언제부터 영어를 접했나요?	a : 51	43
	a. 유치원 b. 초등학교	b : 69	58
3	당신은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 외국어라고 생각하나요?	a : 23	19
	a. 매우 중요 b. 중요	b : 83	69
	c. 별로 중요치 않다 d. 전혀 중요치 않다	c : 10	8
		d : 4	3
4	당신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 : 67	52
	a. 국제적 언어이기 때문에 b. 시험을 위해서	b : 32	25
	c. 중요하다고 하니까 d.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c : 13	10
		d : 18	14

5	당신은 영어에 흥미를 잃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기본 실력 부족 b. 어휘 암기가 싫어서 c. 입시위주 수업 때문에 d. 진도가 빨라서	a : 42	35
		b : 30	25
		c : 38	32
		d : 10	8
6	다음 외국어 습득 기술 중 가장 먼저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a. 듣기 b. 말하기 c. 읽기 d. 쓰기	a : 28	25
		b : 49	43
		c : 28	25
		d : 8	7
7	외국어 습득에 문법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매우 필요 b. 필요 c. 불필요 d. 전혀 필요치 않다	a : 34	28
		b : 68	57
		c : 10	8
		d : 8	7
8	다음 중 당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a. 듣기 b. 말하기 c. 읽기 d. 쓰기	a : 27	24
		b : 25	22
		c : 22	20
		d : 38	34
9	수업 시간에 담당 영어 선생님이 발음관련 교육은 하나요? a. 자주한다 b. 종종한다 c. 거의 하지 않는다 d. 전혀 하지 않는다	a : 34	28
		b : 27	22
		c : 48	39
		d : 13	11
10	당신은 발음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매우 중요 b. 중요 c. 다소 중요 d. 전혀 중요치 않다	a : 34	28
		b : 64	53
		c : 19	16
		d : 3	3
11	당신은 현재 발음을 어떤 기준으로 배우고 있나요? a. 원어민 발음을 따라서 b. 전자사전을 활용하여 c. 철자와 연관지으며 d. 대충 읽는 편이다	a : 33	28
		b : 52	43
		c : 30	25
		d : 5	4
12	당신은 단어나 문장을 읽을 때 강세나 억양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편인가요? a. 매우 관심 b. 관심 c. 다소 관심 d. 무관심	a : 17	12
		b : 32	22
		c : 68	47
		d : 28	19
13	당신은 영어 수업 시간에 영작 연습을 자주하나요? a. 자주 한다 b. 종종 한다 c. 거의 하지 않는다 d. 전혀 해 본 적이 없다	a : 12	10
		b : 32	27
		c : 67	56
		d : 9	8

현재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예라고 답한 학생이 53%,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이 47%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영어를 처음 접한 시기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43%, 초등학교가 58%로 상당수 학생들이 학교 정규 영어 교육을 받기 전에 영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가 중요한 외국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19%, 중요하다고 69%로 응답자의 88%가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는 국제적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52%, 시험을 위해서가 25%, 중요하니까가 10%, 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가 14%로 나타났다. 영어에 흥미를 잃게 하는 원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5%가 기본실력의 부족을, 25%가 어휘 암기를, 32%가 입시위주의 수업을 선택했으며 학습 진도 때문이라는 응답은 8%로 낮게 나타났다.

영어의 네 기능 습득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습득해야 할 것으로 듣기가 25%, 말하기가 43%, 읽기 25%, 쓰기가 5%로 나타났다. 영문법의 필요성은 매우 필요가 28%, 필요가 57%로 나타났으며 불필요가 8%, 전혀 필요치 않다는 7%이다. 언어의 4가지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서 듣기 24%, 말하기 22%, 읽기 20%, 쓰기 34%로 쓰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음관련 교육의 빈도수를 묻는 질문에 자주한다고 28%, 종종한다고 22%, 거의 하지 않는다고 39%, 전혀 하지 않는다고 11%로 나타났다. 발음의 중요도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28%, 중요가 53%, 다소 중요하다고 16%, 그리고 전혀 중요치 않다는 응답자는 3%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발음을 익히는 기준은 원어민 발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 28%, 전자 사전을 활용하는 것이 43%로 철자와 연관 지으며가 25%, 그리고 대충 읽는다는 응답이 4%를 보였다. 문장의 강세나 억양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을 둔다가 12%, 관심을 둔다가 22%, 다소 관심을 둔다가 47%를 보였으며 무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19%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영작을 자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주한다고 10%, 종종한다고 27%, 거의 안한다고 56%, 그리고 전혀 해 본 적이 없다고 8%이다. 자신이 스스로 영작 연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항상한다고 6%, 종종한다고 21%, 거의 안한다고 64%, 전혀 안한다고 20%로 나타났다. 영어시간에 강조하는 영역별 비율을 보면 듣기 7%, 말하기 4%, 독해 53%, 쓰기 0%, 문법이 36%로 나타났다.

4. 1. 4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개인별 성향 조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운영에 대해 개인별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

번호	설 문 내 용	응 답 (명)	비 율 (%)
1	국제자유도시라는 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언어는? a. 영어 b. 일본어 c. 중국어 d. 스페인어	a : 102	85
		b : 8	7
		c : 10	8
		d : 0	0
2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방안에서 영어 공용화 정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a. 매우 긍정적 b. 긍정적 c. 부정적 d. 매우 부정적	a : 15	13
		b : 35	29
		c : 25	21
		d : 45	38
3	당신은 국제적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a. 정보 통신 능력 b. 타문화에 대한 이해 c. 예의 범절 d. 영어 능력	a : 10	8
		b : 65	54
		c : 3	2
		d : 42	37
4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a. 의사소통능력 b. 무역 c. 자유로운 교류 d. 관광	a : 15	13
		b : 7	6
		c : 25	21
		d : 73	61
5	당신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 대해 영어로 어느 정도 소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a. 잘 할 수 있다 b. 할 수 있다 c. 대충 할 수 있다 d. 할 수 없다	a : 3	3
		b : 12	10
		c : 64	53
		d : 41	34
6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성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 중앙정부 b. 제주도청 c. 제주도민 d. 부모	a : 7	6
		b : 9	8
		c : 102	85
		d : 2	2

7	외국 문화가 제주에 접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매우 긍정적 b. 긍정적 c. 다소 부정적 d. 부정적	a : 18	15
		b : 15	13
		c : 76	63
		d : 11	9
8	다문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대한 당신의 입장은? a. 매우 긍정적 b. 긍정적 c. 다소 부정적 d. 부정적	a : 26	22
		b : 48	40
		c : 36	30
		d : 10	8
9	당신은 다양한 나라 출신의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매우 긍정적 b. 긍정적 c. 다소 부정적 d. 부정적	a : 2	2
		b : 35	29
		c : 75	63
		d : 8	7
10	당신은 제주도에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매우 긍정적 b. 긍정적 c. 다소 부정적 d. 부정적	a : 15	13
		b : 69	58
		c : 23	19
		d : 13	11

국제자유도시라는 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언어로 85%가 영어를 선택하였으며 나머지 8%가 중국어를 꼽았고 7%는 일본어를 선택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방안의 하나로 영어 공용화 정책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 42%, 부정적인 입장이 59%로 나타나 부정적인 입장이 다소 높게 나왔다. 국제적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정보통신능력 8%, 타문화에 대한 이해 54%, 예의범절 2%, 그리고 영어능력이 37%를 차지했다. 국제자유도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의사소통능력 13%, 무역 6%, 자유로운 교류 21%에 비해 관광이라는 응답자가 61%를 차지했다.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 대해 영어로 어느 정도 소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잘 할 수 있다가 3%, 할 수 있다가 10%, 대충 할 수 있다가 53%, 할 수 없다가 34%로 나타났다. 국제자유도시 활성화의 주체로는 응답자의 6%가 중앙정부, 8%가 제주도청, 85%가 제주도민, 그리고 2%가 부모로 답했다. 외국 문화가 제주에 접목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가 15%, 긍정적이다가 16%, 다소 부정적이다가 63%, 부정적이다가 9%를 보여 응답자의 76%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다문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62%, 부정적인 면이 38%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나라 출신의 많은 수의 외국인들과 이웃하여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 2%, 긍정적이 29%, 다소 부정적이 63%, 부정적이 7%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주도에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13%가 매우 긍정적, 58%가 긍정적, 19%가 다소 부정적, 11%가 부정적으로 조사되었다.

4. 2 토론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기했던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성향 및 학습 방법, 영어 교과서에 대한 인식 및 영어 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 2. 1 영어 학습 성향 및 학습 방법

먼저 첫 번째 연구 문제에 해당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성향과 학습 방법은 어떠한가에 대한 논의부터 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영어 학습 성향은 사교육 의존도 및 신뢰도가 공교육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입시 위주의 영어 교육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영어에서 보다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 문법과 듣기, 읽기에 치중하고 이는 곧 명문 대학의 입학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며 대학 졸업 후에도 TOEIC과 같은 수험 영어에서의 높은 성적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필수품이라는 생각이 이 사회를 지배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영어시험에서 보다 높은 점수 획득을 위한 일환으로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셈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교육 의존도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과 관련하여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참여율이 84.6%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71.0%, 일반고 고등학생 58.7% 등으로 나타났다.

영어를 처음 접한 시기가 유치원이 43%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도 부모들이 이 같은 사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조기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학부모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영어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차츰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습 성향과 관련하여 가장 눈여겨 볼 만 한 부분은 언어 기능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균형있게 습득하도록 개정 사항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나타난 응답자들의 학습 성향은 가장 먼저 습득해야 하는 언어의 기능으로 말하기를 선택하고 쓰기는 가장 나중에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쓰기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영작 관련 수업을 자주하는가라는 질문에 거의하지 않거나 전혀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 64%로 나타난 점과 학생 자신이 쓰기를 얼마나 자주 연습하느냐는 질문에 거의 또는 전혀 안한다가 78%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영어 수업시간에 가장 강조하지 않는 영역으로 쓰기가 0%로 나타난 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영어 쓰기 기능 향상에 관심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쓰기 기능에 대한 태도는 향후 쓰기 영역이 추가된 국가영어능력 시험(NEAT)에서 특히 국가영어능력시험이 수능을 대체할 경우 더 큰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교사가 쓰기 영역에 대한 관심도나 학생들이 쓰기 영역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교과 과정상 다루는 비중 등 쓰기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며 평가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 볼 때 쓰기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여 쓰기를 통한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들에 대한 영어 쓰기 지도는 오히려 말하기 지도 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영어 쓰기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남식(1982: 107-117)은 외국어는 모국어와 달리 처음부터 교과서를 통한 글과 말을 배우고 있으므로 말하기 지도는 쓰기 지도 다음에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이 순서를 뒤바꾸어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어렵고 비경제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구어는 소위 실제 상황이 있는 곳에서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데 외국어 교육의 대부분은 실제

상황이 결여되기 때문에 구어부터 가르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둘째, 외국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학습자는 이미 자기들의 모국어 교육을 통하여 쓰기 과정에 익숙해져 있을 뿐 만 아니라 쓰기 과정 본연의 시간적인 연속성이 주는 안정감이 학습의 효율을 증대시켜 주기 때문에 쓰기과정을 통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도 높다. 셋째, 쓰기 과정을 통해서 목표 언어를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구어를 배우면 실제 상황의 결여가 어느 정도 보상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에서 사용해 본 언어 규칙들은 내재화되어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기 때문에 생산적이며 창의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쓰기 학습은 인간의 무한한 사고력과 인지력을 글로써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기식이 아닌 창의적 언어 사용의 학습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준비 단계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력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믿고 있다.

4. 2. 2 영어 교과서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어 교과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설문지 C영역에 나타난 교과서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들 대부분은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신옥(2003)은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영어 교재에 관한 연구에서 제주친화적인 내용이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했다고 보고하고 있고, 변길자(2007)도 제주도민을 위한 교재 개발 방향 및 그 활용에 있어서 교재가 제주 친화적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신뢰도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듯 2011년 수능에서 EBS교재의 수능 연계율이 70%로 나타나고 2012년에도 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 나오면서 교실에서의 EBS교재 수업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노컷뉴스, 2011, 4. 17일자). 2011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의 15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전국 고등학교 정규수업 EBS교재 사용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1,800여개 학교 가운데

50% 정도가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영역별 EBS교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정부가 목표했던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방안 보다는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내용이 다른 특색있는 텍스트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교과서는 제주친화적인 것을 바탕으로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다루어야 함이 옳다고 하겠다. 박경자, 장복명(2002)도 영어 교재론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학습자 친화적인 교재가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교과서 내용을 집필함에 있어서도 교사의 창의성이 첨가된 교재의 제작이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외국어 교수법에 적용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늘고 있는데 Puchta와 Rinvoluceri(2005)는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하여 EFL과 ESL 학습자용 초등 영어 교재를 개발한 바 이들은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지능을 적절하게 개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 시각, 청각, 촉각 등을 이용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학습에 적용하기 위해 삽화, 스티커, 사진 등의 형태로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2002),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 세계지질공원 인증(2010)을 비롯하여 세계 7대 자연경관(2012)에 선정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소재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중지능이론의 여러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재가 개발된다면 바람직 할 것이다.

4. 2. 3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안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학습자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기능별 강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첫째, 쓰기 능력 강화 방안이다.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전반적으로 영어 학습은 읽기, 듣기 및 문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서 쓰기가 얼마나 수업시간에 비중 없이 다루어져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완기(2008)는 영어 수업시간 중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영어 기능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읽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기능(productive skill)인 쓰기와 말하기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수업시간 부족과 수능에서의 적은 비중을 이유로 들었다. 쓰기와 말하기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쓰기, 말하기 관련 교재의 개발, 수능에서의 비중 확대, 그리고 교사의 수업 자율성 보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4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NEAT) 모의시험에서 말하기와 쓰기 성적이 듣기와 읽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과 시·도간 격차가 높게 나타난 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 영어능력 강화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쓰기 능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 왔던 쓰기 기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문자를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을 잘 쓰는 능력을 갖게 되면 다른 기능도 동시에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가 언어 습득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Paulston과 Bruder(1976: 203-205)는 쓰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청각자료로만 배우게 하는 것 보다 시청각 자료를 통해 배우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한층 높여준다고 하면서 장점으로 쓰기는 시각자료의 구실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 증거가 있으므로 학습자로 하여금 성취감을 줄 수 있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했다. 또한 학급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 활동이 가능하며 구두, 청각 능력이 뒤떨어진 학습자들은 구두학습만으로는 학습이 어려우므로 쓰기 기능이 보조 능력이 되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말하기가 소리의 산물이듯이 쓰기는 문자 기호의 산물이며 쓴다는 것은 단순히 한 문장 혹은 관련 없는 문장의 무의미한 나열이 아닌 논리적이고 일관성있는 글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Byrne, 1986: 23). 따라서 EFL 학습자들은 영어로 글쓰기 방법을 배우으로써 문법 구조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용진(1991)은 쓰기 학습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쓰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식을 소개하고 연습하면 다른 형식까지도 영

향을 미친다. 둘째, 쓰기 작업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향상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어 심리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부여한다. 셋째, 한 가지 매개체, 즉 말하기나 듣기를 단독 실행하는 것보다 같이 병행하면 훨씬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효과적이며 교실 활동에 다양성을 제공하고 교실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활동에 많은 언어적 접촉을 증가시켜 준다.

그렇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 학생들 위해 쓰기 지도를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글쓰기 지도 방법으로는 결과 중심 쓰기 교육(product-centered writing approach) 보다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process-centered writing approach)을 좀 더 강조해야 할 것이다. 금선경(2007)은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 쓰기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응답자들로부터 과정중심 쓰기가 좀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과정 중심에서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점들을 열거하면 영어 작문을 하는 방법과 관련된 절차, 브레인스토밍 단계 및 이를 활용한 방법, 초고에 대한 반응, 글의 전체 흐름, 초고 과정의 효과, 두 번 초고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적 반응, 교사 피드백에 대한 반응 등에서 결과중심 쓰기 교육보다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자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영어 교과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통제 작문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의 참여도 및 호응도는 대체적으로 매우 좋은 편이었으며 특히 내성적이어서 말하기를 수줍어하는 학생들도 매우 높은 참여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쓰기 활동을 통해 문법적 지식이나 문장 구조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이 말하기와 연관 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쓰기 강화는 EFL 환경에서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통제 작문 지도 방법과 과정 중심 쓰기 지도 방법이 뚜렷하게 어느 방법이 더 낫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학생들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그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서로 보완하는 방법이 가장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고등학생들에게는 아직 쓰기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과정 중심쓰기 지도에 역점을 두면서 결과 중심 쓰기 지도를 적절하게 활용함이 옳다고 여겨진다. 덧붙여 김지원(2006)은 쓰기에서의 기본은 어휘라고 전제하고 영어 쓰기에 능통하기 위해서는 영어 어휘를 많이 그리고 그 뜻을 정확하게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

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즉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말 뜻을 외우게 되면 불완전한 어휘력을 쌓게 되어 쓰기를 할 때 자칫 크나 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들의 어휘 암기 방식과 맥을 같이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문맥상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쓰임 및 활용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면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을 더 진행해 보자.

둘째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말하기 능력 강화가 요구된다. 먼저 말하기 능력 강화 방안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많은 영어권 원어민 교사들이 초빙되어 영어교수 학습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다. 이는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영어권 화자들이 사용하는 발음과 표현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직접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게 영어 말하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Widdowson(1983: 37)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표현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언어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미 또는 의도라고 하였다. Krashen(1982)는 수업에서 교사가 언어 지식의 전달을 넘어 원어를 실제 수업에서 사용할 때 학습자들의 외국어 습득은 강화된다고 보고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의사소통적인 유창성을 성취하기 위해 모국어를 습득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목표어에 노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완기(2000)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비효율적인 가장 큰 이유로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고 배우지 않고 한국어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소영(2009)은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88.8%가 TEE 수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송민숙(2002)은 TEE가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TEE를 통해 듣기와 말하기 기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말하기 능력 평가에서도 유의미한 성적 향상이 있었음을 제시했다.

Doff(2002 : 132)는 학습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발표와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영어 말하기를 할 때 영어 발음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영어의 특징인 강세와 억양을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은경자(2010)는 고등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수행평가에서 역할극, 인터뷰, 연설 등을 수행평가 영역에 포함시킨 결과 평가를 하지 않았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학생들은 말하기에 대해 더 자신감이 생기고 영어로 하는 수업 환경에서도 보다 친숙해지며 영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비록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상의 많은 연구는 있어 왔지만 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택진(2002: 133-142)은 영어 말하기 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부경대학교, 강남대학교 등지에서 말하기 테스트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지만 뚜렷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말하기 능력평가 도구의 이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행정도(administrativity), 타당도(validity), 신뢰도(reliability), 채점도(scoreability) 그리고 실용도(practicality)를 갖춘 말하기 능력 평가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 영어 정책은 보다 실용적이고 학습자 친화적인 말하기 평가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말하기 소재는 자신 소개에서부터 일상생활, 장래 희망, 취미, 가족 소개, 인물 및 사물 묘사, 친구 소개, 자기 마을 소개, 특정 관광지 소개, 자기의 의견 말하기 등 주제를 다양화 하면서도 수준별로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급 학교에서 시행토록 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함으로써 학습자는 말하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게다가 앞에서 본 국가영어능력시험에서도 말하기 능력이 측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말하기 능력 강화의 필요성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중요성은 인식하리라 본다.

셋째로는 듣기 능력 강화 방안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는 부모를 비롯하여 형제자매, 이웃 등 직·간접적으로 많은 말을 듣게 된다. 한 살 쯤 되면 음을 식별할 수 있고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듣기 능력을 갖추게 되고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더 많은 듣기 경험, 다양한 소리에 선별적인 반응을 보이고 음성으로 표현하게 된다(Oakland and Williams, 1971). 싱가포르와 덴마크의 언어학습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TV나 각종 매체를 통해 어릴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해당 언어에 가급적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듣기에 적응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연령에 맞는 적절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함으로써 영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덴마크의 영어교육 특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성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영어 문장의 발음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축약, 강세, 억양, 연결, 설탄음화, 탈락, 병합, 동화 등을 영어를 들으면서 익힌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김지원(2006)은 영어 듣기는 말하기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언어행위라고 하면서 영어 청취력을 향상시키려면 우선 영어 음을 잘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취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네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유사음을 우리말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영어는 영어로 만 익혀야 하며, 둘째로, 영문이 내용을 어순 그대로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셋째로, 받아쓰기 연습을 꾸준히 하며, 넷째로, 특정 낱말에 얽매이기보다는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수동적 교수방법 대신에 듣기와 함께 말하기 훈련도 병행하되 이따금씩 학생 개개인을 정하여 일대일로 질문함으로써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듣기와 말하기 기능은 통합적으로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네 기능 중 하나인 읽기 능력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Krashen(1997)은 외국어 습득을 위한 방법으로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의 책이나 기사를 즐겁고 꾸준히 읽도록 다독(extensive reading)을 강조하지만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문적 언어에도 익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독(intensive reading)도 아울러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지원(2006)은 영어 문장을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가지 연습이 필요한데 첫째는 의미 단위(meaning unit) 찾기이다. 의미 단위란 개인마다 호흡의 길이가 다르지만 대개는 의미 단위별로 끊어 읽는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 의미군을 이루는 문구 단위로 끊어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둘째로, 직독 직해이다. 읽어 나가면서 바로 이해하는 직독 직해 능력이 신속하고 정확한 읽기에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문을 많이 읽되 개별 단어와 표현의 뜻에 얽매이지 말고 문법과 문장 구조를 굳이 따지지 말고 영문을 어순대로 읽어나가면서 전체의 뜻을 파악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성백환(2000)은 직독 직해를 순차번역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순차번역 원리에 따르면 직독 직해는 표면구조가 아

나라 심층구조로 이루어진 독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읽기는 시각을 이용해 인지력을 키워나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시각을 이용해 인지력을 키워나가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작가는 낱말의 영상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연상되는 그림을 떠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영상 기법을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의를 갖고 반복해서 읽어야 하고 이를 통해 두뇌에 자극을 시켜 토픽 문장을 파악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해력이 향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나 교과서를 통한 읽기 능력 향상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활동으로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장르의 서적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목표 언어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읽은 내용에 대해 자신이 느낀 점 등을 쓰도록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쓰기와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자 친화적인 내용의 것들인 각 관광지별 영문 안내서를 참고하여 이를 학습활동과 연계시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읽기를 넘어서 다양한 어휘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영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완기(2008)는 영어를 통한 영어 수업(Teaching English in English) 수업 확대,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영어 전용 교사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영어 교과서 규제 완화 및 질 제고, 영어 친화적 환경조성,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영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개인차와 정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언(2006)은 우리나라 영어교육 문제들의 해결방안에서 과거의 여러 차례 영어교육정책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위상변화에 상응하는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ESL방향으로의 영어 학습 방향 전환을 할 시기라고 언급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은 김종훈(2010: 119)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영어교육의 방향을 다음 10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열거하면 영어수업 시수확대, 학습자

의 수준에 맞는 내용 구성,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확대, 영어 원어민과의 협력수업 확대, 영어 표현능력 강화교육, 영어 평가방법의 점진적 개선, 초임 영어 담당 교사 심화연수 의무화, 일반 영어 담당 교사 국내.외 연수 확대, 학교별 친 영어 환경 조성, 지역 방송을 활용한 영어교육, 내용언어통합학습법(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등이 바람직하다.

내용언어통합학습법은 네델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 외국의 영어교육 선진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어 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한 공통적인 이유 중의 하나로 이 교수 학습 방법을 현장에서 선택하기 때문이다.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균형있게 습득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내용언어 통합 학습법은 단순하게 학습자들이 언어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언어를 모국어와 같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사용하는 이중 언어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Stryker와 Leaver(1993)는 내용언어통합학습법을 언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언어 숙달도를 향상시키고자 한 접근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학습법은 네델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과목의 내용 또는 주제를 학습하는 부산물로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특정 과목의 학습 내용과 제2언어 또는 외국어 학습을 통합하는 것으로 수학, 과학, 사회 등의 교과 내용을 영어로 수업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그 과정을 통해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자는 방법이다. 이 학습법은 접근 방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에 근거하는데 하나는 언어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 또는 도구로 언어(제2언어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때 제2언어를 더 성공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 중심 접근 방법은 제 2언어를 배우기 위한 학습자의 필요성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많은 내용 중심 프로그램이 ESL 학습자에게 학문적 연구나 정규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내용(content)이란 주제(subject matter)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라기보다는 언어를 통해 우리가 배우거나 의사소통하는 실재(substance) 또는 주제를 말한다(Richards & Rogers, 2001: 204). Krahnke(1987)에 의하면 내용기반 교육은 가르쳐지게 될 내용과 언어 자체를 분리시키거나 언

어교육을 위한 직접적 또는 명시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학습될 언어에서의 내용 또는 정보를 가르친다는 의미이다.

Snow(2001: 305-309)는 내용기반 언어 교육 모형은 적용될 외국어 또는 제2 언어 상황, 초. 중등학생, 대학생 또는 성인 등의 수준, 프로그램이 내재하는 언어와 내용의 강조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는 몰입교육(immersion education)모형이다. 몰입교육이란 목표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표어로 수업을 받는 형태를 의미한다. 몰입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목표는 높은 수준의 외국어 숙달도 개발,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개발, 학생들의 나이와 능력에 따른 요구에 상응하는 영어 기능 개발과 교육과정의 내용교과 영역(content areas)에서 명시된 기술과 지식을 얻는 것이다. 이 모형은 제2언어 사용능력 강화, 정규 교과 과정상의 학습 능력 향상, 모국어 사용 능력을 유지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는 초등학교에서 내용강화 외국어(Content Enriched Foreign Language in the Elementary School)로 다양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초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주제기반(Theme based Model) 모형인데 어느 일부 특정 과목이나 모든 과목을 학습자의 흥미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규 교과에 틀에 맞춰 체계적으로 목표어를 가르치는 모형이다.

넷째는 보호모형(Sheltered Model)으로 정규 교과 시간에 제 2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따로 목표어인 제 2 언어를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다.

다섯째는 부가모형(Adjunt Model)이다. 언어능력이 뛰어난 모국어 화자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제2언어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을 위한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한 학생이 두 과정을 신청하는데 하나는 언어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학습과정이다. 두 과정은 동일한 학습 내용을 언어 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다. 언어교사는 언어 사용의 기능을 가르치는데 역점을 두고 교과 담당 교사는 학습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언어와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몰입 교육과 초등학교에서 내용강화 외국어 모형은

외국어를 교육하는 상황에서 적용되어 왔으며 나머지는 제2 언어 상황에서 많이 적용되어 왔다. 이중 언어를 함께하는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두 언어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내용과 언어를 통합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언어적 기능은 물론 사고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모형들 중에서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가장 적합한 내용언어통합학습법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제주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나 덴마크의 경우와 비교하면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주변 환경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정책이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영어가 중립어로서의 역할이 성공적 요인들 중 하나였고 덴마크나 핀란드의 경우는 영어정책이 크게 작용하였지만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지적하자면 정책 수행을 하기에 적절한 인구를 가졌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강력한 제주도민의 의지와 중앙정부의 적극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이 정책에 대한 흡수율이 빠를 뿐 만 아니라 실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본토와 떨어져 있어 지리적으로도 정책을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에 덧붙여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된다면 좀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의 논리나 지역주의의 성격을 탈피하여 관광과 교육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이를 제주도만 특혜를 준다는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한국의 영어정책에 대한 역할 모형 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가 관광과 무역, 금융의 국제적 도시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장점이다. 외국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업무를 볼 때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기업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여 국가 간의 경계선은 이미 의미가 퇴색한 지 오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적 물적 교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매개체는 국제어인 영어이다. 그러므로 영어의 구사 능력은 국제간의 소통을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 버린 현실이다. 한국과 같은 단일 언어를 사용해 온 국가들은 영어를 습득하고자 그 동안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으며 앞서 언급된 일부 국가들은 영어교육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들은 단순히 교수방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책적, 사회문화적, 교수방법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학생들이 영어의 중요성 인식과 학업 성취 의식이 높게 나타난 점은 영어 능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매우 낙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동기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외적 요소들이 뒷받침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영어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더 큰 영어 학습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으로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교육의 빈부격차 발생을 해소시키기 위해 공교육만으로도 모두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며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인적, 물적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아울러 영어교사 연수에 대한 연수는 단기성이 아닌 중.장기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공신력있는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원어민의 활용을 높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업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제주도내에서는 현실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당연한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는 지구촌화되고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는 영어친화적인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방송 및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내에 거주하는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도민이나 외국인들을 지역민들과의 연계를 통한 언어 교육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 시행함으로써 영어교육 활성화를 촉진해야 하며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출세나 지위의 상승이 아닌 의사소통의 기능적 수단이라는 전반적인 이해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쓰기 기능부터 강화하고 동시에 말하기 기능과 듣기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영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이해기능보다 표현기능에 대한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영어 교수학습의 방법적 측면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실용영어 교육과 언어의 4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습득하는 내용언어통합학습법이 요구되며 교사는 다중지능이론을 기반으로 한 학생들의 인지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영어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소외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비록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학습 자료를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공동연구를 통해 좀 더 다양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업은 역사나 한국어 시간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점차 영어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수업 만이라도 영어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수한 영어교사의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앞에서 싱가포르와 홍콩, 덴마크와 핀란드 등 영어교육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나라들의 특징에서 나타났듯이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영어교육 정책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민, 교육당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영어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로부터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있는 영어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참 고 문 헌

- 고신옥.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영어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중학교 영어 교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 교육부. (199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보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 금선경. (2007).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 쓰기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 김종훈. (2004). 국제자유도시의 언어정책: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영어영문학연구*, 46(4), 217-242.
- 김종훈. (2010).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언어정책과 과제*. 제주: 온누리.
- 김지원. (2006).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학습방법. *영어어문교육*, 12(3), 167-186.
- 민현식. (2000). 공용어론과 언어정책. *이중언어학* (17), 이중언어학회.
- 박경일. (2003). 영어/번역 어떻게 가르칠까/공부할까?: 영어/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탈이론적 방법론 서설. *번역학 연구*, 4(1), 5-26.
- 박경자, 장복명. (2002). *영어교재론*. 박영사.
- 박남식. (1982). 영작문 교육의 개선을 위한 제언. *어학연구*, 18, 107-117, 서울대학교.
- 박영의. (2003). *FLEFE 영어 3000*. 대전: 도서출판 FLEFE.
- 박제희. (2003). *한,중,일(EFL)환경과 싱가포르(ESL환경) 초등영어 교과서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 박준언 (2006). *우리나라 영어교육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찾아서*. 계간 시대정신.
- 변길자. (2007). 제주도민을 위한 영어교재개발 방향 및 그 활용. *현대영어교육*, 8(2), 112-129.
- 변종민.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어인프라 구축 방안. *영어영문학* (9) 39-62.

- 성백환. (2000). 번역속도 제고와 순차번역. *번역학 연구*, 1(1), 119-144.
- 송민숙. (2002).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 신용진. (1991). *영어교육공학 III: 영작문 지도이론과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 은경자. (2010). *TEE 영어회화 팀티칭에서의 말하기 활동을 통한 수행평가 연구; 고등학생 말하기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 윤신화. (2006). 핀란드의 언어교육. *초등교육*, 29, 68-71, 한국초등교장협의회.
- 이소영. (2009).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인식비교*. 석사학위 논문.
- 이완기. (2000) *초등영어교육론*. 문진미디어.
- 이완기, 김정렬, 박매란. (2008).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12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정영숙. (2005).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비교 분석 : 한, 일, 홍콩, 싱가포르 교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 정택진. (2002).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동서논문집*, 12, 133-14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8). 2008 제주특별자치도 영어 공교육강화 대책.
- 진경애. (2007). 우리말과 어순 같은 핀란드 초등 때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익혀 : 핀란드의 영어교육. *교육마당*, 21(299), 120-121.
- 최숙희, 김성현, 김인철. (2006). 영어교육과 정보화 시대. *영어어문교육*, 12(1), 239-256.
- 한국교육개발원. (1997).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한학성. (2002). 덴마크의 영어 교육 개혁과 Jespersen. *어학연구*, 38(1), 365-384, 서울대학교언어교육원.
- 한학성. (2004). *Otto Jespersen의 외국어 교육 개혁론*. 한국문화사.
- Byrne, D. (1986). *Teaching Writing Skills*. Singapore Longman Singapore Publishers Press Limited.

- Crystal, D. (1997).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ff, A. (2002). *Teach English: A training course for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nke, F. (1884). *Die Praktische Spracherlernung auf Grund der Psychologie und Physiologie der Sprache*. Leipzig: Reisland.
- Howatt, A. P. R. (1999). *A History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espersen, O. (1904). *How to Teach a Foreign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Juul, A., Nielsen, H. F. eds. (1992). Otto Jespersen and the introduction of new language teaching methods in Denmark. In *Aspects de l'histoire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1880-1914, Numero special du Bulletin CILA* 56, 91-105.
- Krahnke, K. (1987). *Approaches to Syllabus Design for Foreign Language Teaching*. New York: Prentice Hall.
- Krashen, S. D.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m Press.
- Krashen, S. (1992). *Fundamentals of Language Education*. Laredo Publishing Co, Inc.
- Krashen, S. (1997). The comprehension hypothesis: Recent evidence. *English Teacher's Journal*, 49, 11-19.
- Kwon, O., Yoshida, K., Watanabe, Y. Negishi, M, & Naganuma, N. (2004). A comparision of English proficiency of Korean, Japanese, and Chinese highschool students. *English Teaching*, 59(4), 3-21.
- Oakland, T & Williams, F. (1971). *Auditory Perception*. Seattle, Special Child Publication.
- Paulston, C. B & Bruder, M. N. (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Massachusettes: Winthrop

Publisher Inc.

- Puchta, H & M. Rinvoluceri. (2005). *Multiple Intelligences in EF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 J., & Rodgers, T. (2001).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now, M. A. (2001). Content based and immersion models for second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In Celce-Murcia. M.(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United States: Heinle & Heinle.
- Sorensen, K. (1989). The teaching of English in Denmark and Otto Jespersen. In *Juul & Nielson*, 1989, 29-41.
- Stewart, W. A. (1968). An outline sociolinguistic typology for describing national multi-lingualism. In J. A. Fishman. ed. *Reading in Sociology of Language*. The Hague : Multon.
- Stryker, S., and Leaver, B. (1993). *Content Based Instruction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Widdowson, H. G. (1983), *Communicative Grammar I & II: Teachers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 J. D & Snipper, G. C. (1990). *Literary and Bilingualism*. New York & London: Longman.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glish Education in Schools in Jeju Province
- with special reference to high school students in Jeju city -

Ahn, Tae-kyou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ong-Hoon*

As the world is becoming a global village, the thick wall between countries in the past is weakening and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are increasing. In this process, English serves not only as an essential means of communication but as a scale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o keep up with this new era,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as to make preparations for getting the status of an international city. However, as far as English proficiency is concerned, Jeju students need to raise their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In order to find out ways to improve English proficiency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3 main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in this thesis. They are the ways of English learning and acquisition, the effective ways of learning English. and the degree of dependence on English textbooks to improve English competence.

It was revealed that students in Jeju still concentrated mainly on reading and English grammar to acquire English. Secondly, writing and speaking in English class have rarely been dealt with. Thirdly, students in Jeju don't have much access to the use of mass media regarding English education.

With regards to English textbooks, the reasons students don't have interest i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2.

textbooks used in the class are as follows. First, they don't contain enough interesting contents to intrigue students. Second, the contents in the textbooks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ir real life situations. Third, they don't deal with the 4 language skills appropriately, which are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As effective ways to improve English educa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English has to be taught in English and in content and language-integrated learning, Jeju special 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dominated English education policy should be contain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desirable that writing in language function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ha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communicative competence. Secondly, speaking should be encouraged in class. Thirdly, English textbooks have to contain texts and material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Fourthly, native English teachers should have the chance to evaluate students' speaking and writing skills. Fifthly, multi-media like English T.V programs or English newspapers should be used in or out of the classroom as much as possible. Sixthly, user-friendly teaching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Seventhly, English pronunciation should be taught on the basis of phonetics. Lastly, the contents in the textbooks should be linked to writing.

In addition, geographically, Jeju is isolated from the mainland, so locals are rather exclusive to people who are from other provinces or cultures. Thus, to break their prejudice of other cultures or peopl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education is needed.

<부록 1>

1. 설문지 양식

A. 학습자의 교육 의존도 및 영어교육 관련 대중매체 활용도 조사

1. 당신은 공교육과 사교육 중 어느 쪽을 더욱 신뢰하나요?

- a. 공교육 b. 사교육

2. 만약 사교육에서 내신 관련 강의 및 준비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a. 그래도 받는다 b. 고려할 것이다
c. 받지 않을 것이다 d. 부모님의 결정에 따른다

3. 당신은 대학 진학 후 영어의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고 싶나요?

- a. 듣기 및 말하기 b. 읽기
c. 쓰기 d. 토익 또는 토플과 같은 수험영어

4. 당신은 영어관련 EBS 방송 또는 인터넷 강의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나요?

- a. 자주 b. 종종 c. 가끔 d.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5. 당신은 EBS 방송에서 주로 영어의 어느 분야를 이용하나요?

- a. 수능관련 강의 b. 토플, 토익 c. 회화 d. 영문법

6. EBS 강의에 대한 당신의 만족도는?

- a. 매우 만족 b. 만족 c. 보통 d. 불만족

9. 당신은 수업 시간에 담당 영어선생님이 발음 교육을 하나요?
 a. 자주한다 b. 종종한다 c. 거의하지 않는다 d. 전혀하지 않는다
10. 당신은 발음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매우 중요 b. 중요 c. 다소 중요 d. 전혀 중요치 않다
11. 당신의 현재 발음을 어떤 기준으로 배우고 있나요?
 a. 원어민 발음을 따라하면서 b. 전자사전을 활용하여
 c. 철자와 연관지으면서 d. 대충 읽는 편이다
12. 당신은 단어나 문장을 읽을 때 강세나 억양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읽는 편인가요?
 a. 매우관심 b. 관심 c. 다소 관심 d. 무관심
13. 영어 수업시간에 영작관련 수업은 하나요?
 a 자주한다 b. 종종한다 c. 거의 하지 않는다 d. 전혀 해 본 적이 없다
14. 배운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은 얼마나 자주 영작을 하고 있나요?
 a. 항상한다 b. 종종한다 c. 거의 안한다 d. 전혀 안한다
15. 학교에서 영어시간에 무엇을 가장 강조한다고 생각하나요?
 a. 듣기 b. 말하기 c. 읽기 d. 쓰기 e. 문법
16. 주로 어떤 방법으로 어휘를 암기하나요?
 a. 종이에 쓰면서 b. 한 번 써보고 눈으로 익힌다
 c. 눈으로 만 익힌다 d. 원어민 발음을 듣고 반복하며 익힌다

<부록 3>

C. 실제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와 관련한 선호도 조사

1. 현행 교과서가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a. 매우 도움이 된다 b. 도움이 된다
- c.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d.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현행 교과서가 읽기와 쓰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a. 매우 도움이 된다. b. 도움이 된다
- c.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d.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현행 교과서가 단원 내용상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a. 매우 그렇다 b. 그렇다 c. 다소 그렇다 d. 그렇지 않다

4. 현행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영어권 문화를 어느 정도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a. 매우 충분하다 b. 충분하다 c. 미흡하다 d. 연관성이 거의없다

5. 제주 관련 내용을 교재에 수록한다면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 a. 매우 가능하다 b. 가능하다 c. 보통이다 d. 그저 그렇다

<부록 4>

D.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개인별 성향 조사

1. 국제화자유도시라는 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언어는?
a. 영어 b. 일본어 c. 중국어 d. 스페인어

2.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방안에서 영어 공용화 정책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a. 매우 긍정적 b. 긍정적 c. 부정적 d. 매우 부정적

3. 당신은 국제화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정보통신 능력 b. 타 문화에 대한 이해 c. 예의범절 d. 영어 능력

4.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a. 영어 의사소통 능력 b. 무역 c. 자유로운 교류 d. 관광

5. 당신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영어로 어느 정도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a. 잘 할 수 있다 b. 할 수 있다 c. 대충 할 수 있다 d. 할 수 없다

6.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성화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중앙정부 b. 제주도청 c. 제주도민 d. 부모

7. 외국 문화가 제주에 접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매우 긍정적 b. 긍정적 c. 다소 부정적 d. 부정적

8. 다문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당신의 생각은?
a. 매우 긍정적 b. 긍정적 c. 다소 부정적 d. 부정적

9. 당신은 다양한 나라 출신의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 a. 매우 긍정적 b. 긍정적 c. 다소 부정적 d. 부정적

10. 당신은 제주도에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 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a. 매우 긍정적 b. 긍정적 c. 다소 부정적 d. 부정적